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11/03~2025/11/09]

2025.11.10

[로봇] 양산을 꿈꾸는 테슬라

- 로보월드 개최. 뉴로메가 등 국내 주요 기업 신제품 및 신기술 다수 출품
- 해외에서는 테슬라가 옵티머스 양산 계획, 샤오펑이 아이언 2세대 로봇 공개
- 로보티즈 유증 규모 두배로, HD현대로보틱스도 IPO 관심, 리얼월드는 기업가치 2천억

[방산] 이라크 총선

- 아시아나항공, 내년 1월에 인천 2터미널로 이동. 합병 준비 본격화
- 대한항공-아시아나 공영위 노선 배분 본격화. 광, 장자계 노선 두고 치열한 경쟁
- 미국, 섯다운 여파로 국내선 항공편 감축 운항. 국제선 영향은 없음

[항공] 섯다운의 여파

- 사우디, UG넥스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기술이전·현지생산 논의
- UAE는 KF-21 관심. 다음 주 두바이 에어쇼. 강훈식 비서실장도 UAE 행
- 유럽에 감도는 긴장감. 계속해서 러시아 견제. 폴란드는 국민 대상 군사 훈련

[조선] GTT가 예상하는 내년

- 글로벌 신조 발주 전년비 38% 급감. 중국 점유율 73%로 독주 계속
- 머스크가 중국 뉴타임즈에 LNG DF 컨테이너선 발주. 친환경선에서 입지 좁아지는 한국
- GTT가 내년도 LNGC 발주에 강한 기대감 표출. 현재 FID 기준 150여척 필요한 상황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02)

[양산을 꿈꾸는 테슬라]

- 11월 6일 개최된 테슬라 주총에서 언급된 옵티머스 관련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1) 팔과 손의 엔지니어링 (2) Real-world AI 구현 (3) 대량 제조를 꼽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 밖에 없음을 강조.
- 실제로 테슬라는 현재 옵티머스 양산을 준비 중이며, 시양산 라인 영상을 공개. **프레몬트 공장에서 연간 100만대 라인업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후 텍사스에서 연간 1,000만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연 1억~10억대 레벨로 업그레이드 전망.
- **옵티머스 3는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며, 옵티머스 4(2027년), 옵티머스 5(2028년)으로 지속 개선 추진. 이번 주총에서 로봇 핸드도 공개했으나, 일론 머스크 CEO는 이보다 **더 개선된 손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지능 구현을 위한 AI칩(AI5)에 대한 비전도 공개.

Key Chart: 테슬라가 공개한 것들



자료: 언론보도, 테슬라,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양산을 꿈꾸는 테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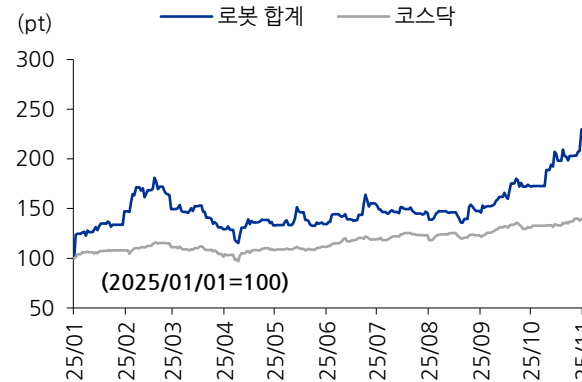
테슬라 주총에서 내년도 이후 옵티머스 양산 계획을 공개. 26년부터 옵티머스 3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프레몬트 공장에서 연간 100만대 양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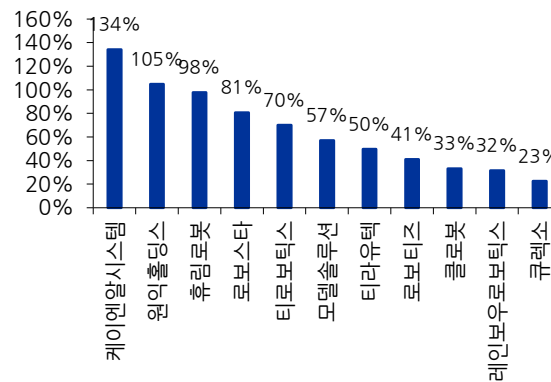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11/03~11/09)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한화로보틱스, 협동로봇 라인업 확대. 내년 2종 추가
- 뉴로메카, AI 기반 카지노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휴머노이드]

- 네이버, 차세대 휴머노이드 '미니노이드' 실물 공개

[부품/SW/기타]

- 한국, 일본과 중국 산업용 로봇에 43.6% '반덤핑 관세'
- 로보티즈, 유상증자 규모 1,000억원 → 2,098억원
- 리얼월드, 1년만에 프리 2,100억 밸류에 투자 유치 진행
- 네이버 "엔비디아 GPU 6만장 활용해 루키 성능 개선"
- HD현대로보틱스 1,800억원 투자금, RFM 확보에 집중할 것
- 두산로보 AI 기반 솔루션 '스캔앤고', CES 혁신상 수상
- 두산로보, 에이딘로보틱스와 '피지컬 AI' 구현 공동개발
- 삼현, 로봇·방산 대량생산 위한 신규 공장 투자
- 원익로보, '휴머노이드 손 개발' 총괄연구개발기관 선정
- 본시스템즈-한국피아이엠, 휴머노이드 '로봇 손' MOU
- 유일로보틱스, 피지컬 AI R&D 센터 개소

[Global]

- 中 전문가들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8년 내 불가"
- 中 샤오핑,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론' 전격 공개
- 中 유니트리, 데이터 수집용 '바퀴 휴머노이드' 출시 임박
- 中 올해 산업용 로봇 생산량 2024년 수준 넘었다
- 테슬라 주주총회서 옵티머스 양산 계획 등 공개
- 테슬라 옵티머스, 뉴럴링크 뇌칩으로 제어 테스트 시작
- 美 테라다인 로보틱스 그룹, 직원 14% 해고



Weekly Keyword

이라크 총선

11월 11일 이라크 총선이 예정. 한국의 K-2 전차 등 수주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총선 결과에 주목 필요. 정부 구성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확실성 존재하나, 수출 협의 지속될 것으로 기대.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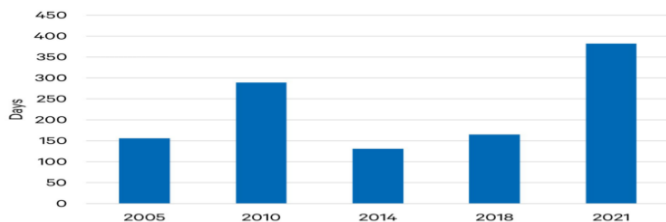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테디(50)

[이라크 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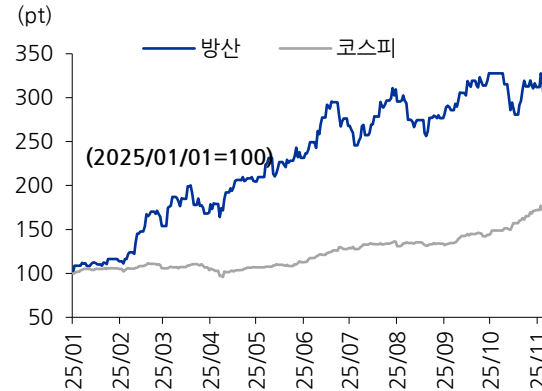
- 11월 11일 이라크 총선이 예정되어있음. 이라크 대통령 선출 및 총리 임명을 담당하는 대의원 329명을 선출하게 됨. 현재 총리는 무함마드 시아 알아사디. 시아파 연합체인 조정 프레임워크(CF) 지지로 성립.
- 이라크 정치 체제는 무하사사(Muhasasa)라는 비공식적인 불문율에 기반하여 시아파 - 총리/수니파 - 국회의장/쿠르드족 - 대통령로 배분 됨. 참고로 총리가 행정부 수장/군 통수권자. 총선 이후 연정 협상, 총리 지명의 순서로 진행되게 됨. **2005년 이후 투표부터 정부구성까지 평균 224일이 소요되었음.** 민주주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 따라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며, 투표 그 자체보다는 투표 이후 연정 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현 총리가 이끄는 재건/발전 연합이 최대 의석 수를 확보하며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나, 전 총리인 알말리키 등 내부 역학 구도 변화에 따라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음. 현재 이라크에서 진행 중인 K-2 전차 수출 사업 등에 영향 미칠 수 있으나, K-2 전차는 미국/러시아 전차 대비 가격 및 운용 유지 관점에서 강점이 있어, 정치적 변화에도 지속 추진될 가능성될 것으로 기대함.

Key Chart: 과거 이라크 정부 구성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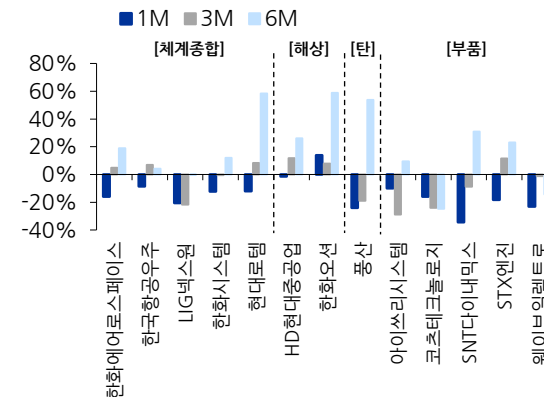


자료: Chathamhouse,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11/03~11/09)

[수주/계약]

- 사우디, LIG넥스원·한화와 기술이전·현지생산 논의
- UAE, F-35 협상 실패 후 KF-21 차선택으로 검토

[기업별 이슈]

- 쿨터 한화에어로 해외사업 대표, 한화 美 방산법인 대표로
- KAI 노조, "말만 앞선 'K-방산 250억 달러', 정부 규탄"
- 대한항공, 무인표적기 부품 국산화 수주. 개발비 230억원
- 대한항공 스텔스 무인기 한화 엔진, 1월 시종 시험 돌입

[기타]

- 국방차관, 캐나다와 방산 협력 콘퍼런스
- 덴마크 의회 사절단, 창원 방문 '방산 협력 첫걸음'
-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불공정 관행 의혹에 현장조사
- 공군총장, KF-21 직접 타고 지휘비행 수행
- 한-UAE, 첫 공군 대 공군 회의 열고 협력 확대 논의
- 국방부 출신 퇴직 후 한화에어로 등 방산업체 대거 재취업
- 425 군 경찰위성 5호기 발사. 한반도 지키는 '눈' 완성
- P-3 교체사업 내년 윤곽. KAI, 한국형 해상초계기 제안
- 공대공 유도탄 내년 개발. LIG·현대로템 vs 한화 경쟁

[글로벌]

- EU, 유럽방위기금에 우크라이나 방산 기업 참여 허용
- 나토 사무총장 "러시아, 中北과 협력해 장기적 대립 준비"
- 캐나다 840억 캐나다 달러 국방비 증액 단행
- 사우디, F-35 보유 숙원 이루나. "장관급서 판매 논의"
- 폴란드, 국민 대상 대규모 군사 훈련 연내 개시



Weekly Keyword

셋다운의 여파

미국 정부 셋다운 여파로 미국 주요 공항 운항 감축 명령이 내려짐. 현재는 40개 공항에 대해 10% 감축을 지시. 국내선 중심으로 한국 항공사에 영향은 미미. 27일 추수감사절까지 해결 여부 주시.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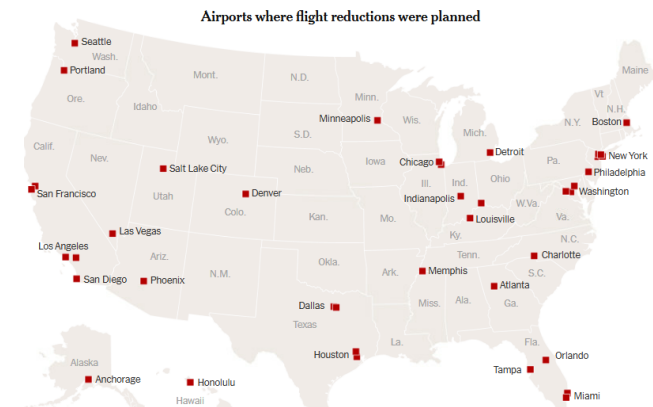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0)

[셋다운의 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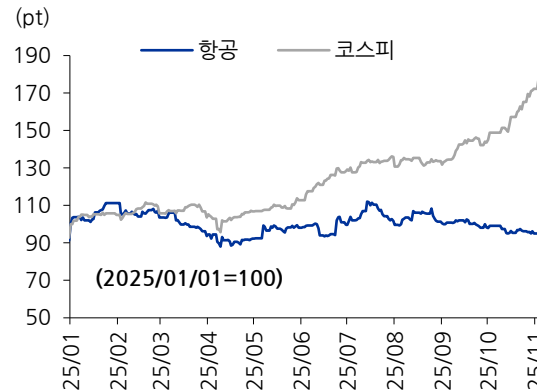
- 미국 정부 셋다운 여파로 미 연방항공청(FAA)가 미국 주요 40개 공항의 운항 10% 감축을 명령. 셋다운에 따라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관제사 등 필수인력이 이탈하면서 업무 부하가 걸리고 있기 때문.
- 현재 미국 국내선 중심으로 줄이고 있어, 한국-미국 직항 노선 등 국제선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사태 장기화시 국제선까지 영향을 미칠 리스크는 남아있음. 미국 더피 운수부 장관은 사태가 계속될 경우 최대 20%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 현재로서는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미국 항공사들의 주가는 큰 영향이 없음. 11월 27일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까지 정상화 여부 주시.

Key Chart: 운항 감축 예정 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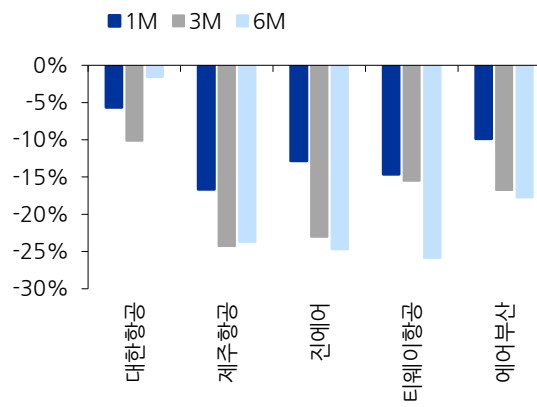


자료: NYT,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11/03~11/09)

[여객/화물]

- 제주항공, 인천~오사카 노선 증편. '하루 7회' 운항
- 티웨이항공, 제주-후쿠오카 주 4회 신규 취항 확정
- 애틀랜타~인천 직항편, 내년 하루 4회까지 증편
- 9월 외국인 입국자 175만명. 전년비 15.1%↑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USA투데이 '10베스트 어워즈' 3개 부문 수상
- 대한항공 엔비디아 GPU 수송 '1순위' 부상
- 대한항공, 무인표적기 핵심 구성품 국산화
-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대상 3000억 영구 CB 발행
- 아시아나, 내년 1월부터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서 운항
- 제주항공, 차세대 항공기 'B737-8' 8호기 도입
- 제주항공, 화물기 엔진 떼어 여객기로 전용
- 파라타항공, 인천~나리타 노선 '지속가능항공유' 사용

[기타]

- 광 항공권 10만원·비즈니스석 '1+1' 판매까지
- 공정위 노선 재편 본격화. 이스타, 광 노선 인수 추진
- 장자제 운수권 놓고 제주항공 vs 이스타 항공

[글로벌]

- 美 최대 항공사들, 주말 항공편 수백편 취소. 셋다운 여파
- 카타르항공,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 지분 전량 매각
- 버진 애틀랜틱, 서울-런던 직항 노선 내년 3월 취항
- 美 켄터키서 UPS 화물기 이륙 직후 추락



Weekly Keyword

GTT가 예상하는 내년

GTT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LNG 프로젝트의 FID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내년도 강한 LNGC 발주 흐름을 전망. 현재까지 승인된 프로젝트 기반, 약 150여척의 LNGC가 필요할 전망.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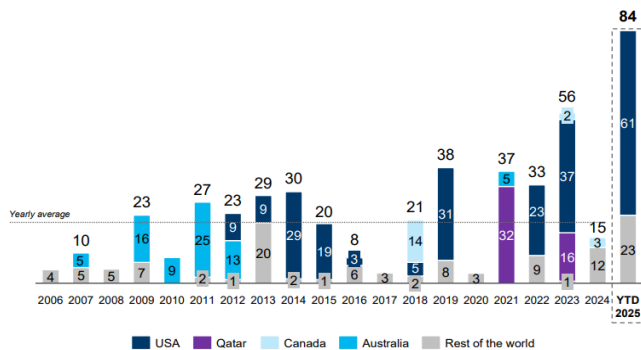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0)

[GTT가 예상하는 내년]

- GTT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 2025년은 8,400만톤의 LNG 프로젝트가 결정된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한 해. LNGC 발주 관련 선주들과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선주들은 중국과 한국 간의 경쟁을 통해 이점을 얻고자 함. 주문 시점은 빠르면 2025년 마지막 두 달 동안 주문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26년은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현재 2028년 인도분 선박 건조를 위한 슬롯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다음은 2029년 인도분 슬롯이므로 시장 가속화가 예상됨. GTT의 Philippe CEO는 2025년 현재까지 승인된 LNG 프로젝트에서만 약 150척의 LNGC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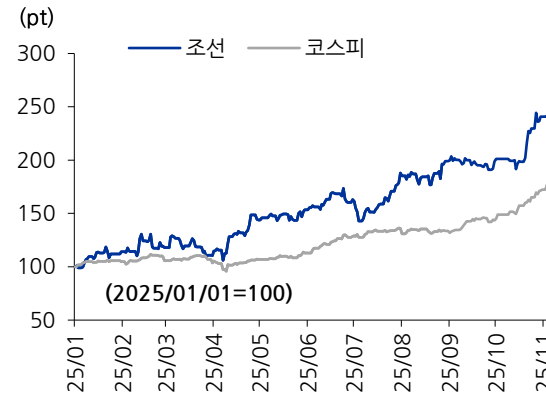
Key Chart: 2025년 LNG FID 현황

FID volume by country¹, Mt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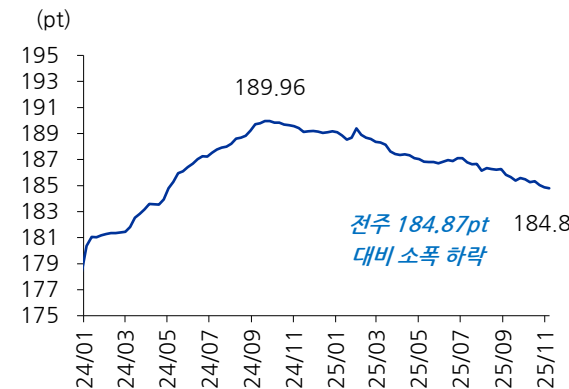


자료: GTT,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11/03~11/09)

[상선/해양]

- 10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 38% 급감. 中 점유율 73% '독주'
- 삼성중공업, 2,901억 원 규모 원유운반선 2척 수주
- 삼성중, 노르웨이 NAT서 '2,400억 규모' 탱크 2척 수주
- 스웨덴 해사청 "HD현대중 제안 가장 우수. 선단 교체 시급"
- 삼성중, FLNG 예비 계약 1조1천309억으로 증액 결정

[특수선]

- 위성력 "원잠, 한국서 건조할 생각. 필리조선소 비현실적"
- 한미 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재확인'
- 국내 조선소서 원잠 설계 절반 마무리
- 14일 분과위서 KDDX 사업 방향성 논의 계획
- 국감에서 유무인 전력모함 30년대 후반 확보 계획 공개
- 加 온타리오주 장관, TKMS 이어 한화오션 방문 시사
- 영국 대사,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를 지지 입장
- 한화오션, 필리핀에 3,000t급 잠수함 도입 제안

[기타]

- 삼성중공업, 美 조선소 현대화 촉진 위해 디섹과 협약
- 中, '한화오션 제재 철회' 질문에 '美 협상성과 이행 용의'

[글로벌]

- 머스크, 중국에 23억 달러 LNG DF 컨선 발주
- Golar LNG, 4번째 FLNG 건조 위해 조선소 3곳과 논의
- 호주, '36조원 규모' 합정 건조 조선소 투자 유치
- GTT, 2025년 FID 프로젝트 기반 LNGC 150척 필요
- 美中 휴전, VLGC '활력'. 운임 급등·선박 수요 증가
- 현대식 LNG운반선 용선료, 하루 7만 달러 돌파